

교회 소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예전 색깔은 녹색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여름 가족 캠프가 6월 8일 토요일에 있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 세미나 : 오후 2시 - 4시 30분, 교회 Youth Center
같은 시간 자녀들은 RAC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 저녁 식사 및 친교 : Oxbow Park Shelter#2 (세미나 이후 이동),
6시부터 식사 및 친교
4. 주일학교, 수요기도회, 목장모임은 6월부터 8월 말까지 쉽니다.
5. 6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3주간 청소년을 위한 <화목한 기타교실>이 있으니 신청해주세요. (개인 기타 지참)
 - 화목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교회에서, 강사는 김경현 목사.
6.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5일 : 김준성 6일: 위충일, 이시원
 - 8일 : 임준수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이건영 / 설교번역: 허민준
- 5월 안내 및 봉사: 주나 목장

* 성서일과 Lectionary (제 22주)

삼상 3:1-10/ 시 139:1-6, 13-18 / 막2:23-3:6/ 고후 4:5-12

교회세운날 2017.6.11

24-22

6월 2일 (성령강림절 후 둘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on Zoom
마지막 주 수요일은 목자모임으로 대체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oneheartkoreanchurch.com

213-357-7614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신명기 32:3-4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김현경 자매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요한복음 6:1-15절 — 인도자

설교 — 오병이어와 성만찬 — 김경헌 목사

성찬식 — 다같이

봉헌찬송 —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3, 4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김경헌 목사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거룩한 놀림의 시간

어린 시절부터 겨울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냥 농사일을 멈추는 겨울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겨울 방학은 여름 방학보다 훨씬 길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여름 방학에는 방학 내내 농사일을 도와야 했지만 겨울 방학에는 방학 내내 놀 수 있으니 방학이라고 같은 방학이 아니었던 것이죠. 겨울엔 어른들도 일년 농사를 마치고 온전한 휴식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이 집 저집 마실다니며 수도도 펴고, 화투도 치며 무료한 겨울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겨울의 멈춤과 놀림의 시간이 있었기에 이듬 해 봄부터 시작 되는 고된 농사일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주간의 설교를 통해 베데스다 못가의 38년 누워 있던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 안식에 관한 주제를 여러 분과 나눴습니다. 솔직히 안식에 관한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안식은 현대인이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놀림의 시간인 안식인데 우리는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생산이 멈추는 비농부의 시간이 우리에게겐 불편하기만 한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멈춤과 휴지(休止), 놀림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실천임을 강조하십니다. 세상을 육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칠일 쉼 쉬시며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어디에도 어떤 것을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로지 칠일 쉼의 시간만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되다 하십니다(창2장 3절). 그런 의미에서 안식은 시간의 막간이 아니라 시간의 절정입니다. 창조의 절정이자 창조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나를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웃을 위한 여백의 시간입니다. 제가 선교적 영성을 실천하는 훈련을 할 때, 교수님께서 안식에 관한 숙제를 내주시곤 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훈련은 하루에 7시간 이상 자기였습니다. 저는 잠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는 시간이 무척 아까웠고 새벽에 책을 읽거나 밀린 일을 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부족한 수면 시간이 저의 몸과 정서를 망가뜨려 오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꽤 긴 기간 동안 7시간 수면 습관을 훈련(?)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변화가 일어나더군요. 가족들에게 대하는 태도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안식의 혜택을 내 가족과 이웃이 누릴 수 있다는 것ですよ. 현대인들은 뭔가 채워지지 않은 빈 시간이나 놀림의 시간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깊은 심심함을 즐길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놀림의 시간, 멈춤의 시간은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다시 굴러갈 힘을 공급합니다. 여름 동안 잘 안식하시길 빕니다. 교회학교, 수요기도회, 목장 모임도 잘 쉬어 보시다. 잘 멈추고 잘 안식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거니까요.